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3월 10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6장 24절-29절

설교제목 : “네가 미쳤도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베스도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눈에는 바울이 단단히 미쳐 보였습니다. ‘미쳤도다’로 번역된 ‘마이노마이’는 ‘미치다, 헛소리를 하다’라는 의미인데, 베스도에게 바울의 변증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미쳤도다란 베스도의 말은 바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매우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을 미치게 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이유가 그의 많은 학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많은 학문’이란 구약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미쳐 보이는 것은 구약성경에 대한 박식함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몰두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은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참고 롬14:8, 빌3:7-9) 여기서 우리는 잠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믿는 예수 공동체는 잔멸되어야 하는 집단으로 믿고,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미친 자였습니다.(행26:13) 더불어, 베스도 역시 자신의 신념대로 열정적으로 사는 인물이었습니다.(행25:1).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열정적인 삶을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열정의 근원이 무엇이나?**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열정의 근원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열정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지었습니다.(전1:2)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는 ‘**잡았는데 바람같더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확신하며 이것다라고 잡고 열정을 다해 살았는데, 결국 손을 펴보니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정을 다하여 살았다고 한들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1:3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에서 ‘유익한가’는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마24:35)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요일2:17)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히13:8) 바울은 영원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정의 동력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

응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을 봅시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공개적이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실재적이고, 부활의 사건 역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미치지 않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다고 확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활의 예수님이 분명하게 실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미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말을 하나이다’에서 ‘하나이다’로 번역된 ‘아포프덴고마이’는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변론이 복음적 선포였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 미치게 되면, 자신보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생존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다른 사람이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지막 기원을 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에서 ‘원하나이다’로 번역된 ‘유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예수에게 미친 예수쟁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예수쟁이란 예수께 미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의 기원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드러내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해 아래서 영원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 2) 열정보다 열정의 근원(뿌리, 동기, 동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